

# 『의방합편(醫方合編)』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丁彰炫<sup>1</sup> · 金溶珠<sup>1</sup> · 張祐彰<sup>1,\*\*</sup>

## A Study on 『Uibanghappyeon(醫方合編)』\*

Jeong Chang-hyun<sup>1</sup> · Kim Yong-joo<sup>1</sup> · Jang Woo-chang<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Uibanghappyeon(醫方合編)』 is a large-scale medical formulary with 『Samuillheombang(三意一驗方)』 and 『Chon-gagugeupbang(村家救急方)』 at its core, combined with personal experience of the compiler and various pieces of fragmentary knowledge. This book was brought into existence through the cumulation of numerous folk medicinal remedies and cannot be considered a work of professional expertise. The historic worth of this book in medicin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has kept the tradition of empirical medicine based on first sia alive, in fusing the practice of late Joseon(朝鮮) empirical prescriptions, as can be seen in 『Samuillheombang(三意一驗方)』, and the practice of empirical medicine, as can be seen in 『Chon-gagugeupbang(村家救急方)』, together.

**Key Words** : Uibanghappyeon(醫方合編), Chon-gagugeupbang(村家救急方), empirical medicine.

### I. 序論

『의방합편(醫方合編)』은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醫方書로서, 경험방류 저작으로는 보기 드물게 2권 3책의 방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단 1질이 필사본 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었으므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필자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전통의과학 지식자료 국역사업’의 일환으로, 번역하고 해제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 책을 만났다. 이때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텍스트’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영인본(국립중앙도서관검색(<http://www.nl.go.kr/>) 원문정보 참조)을 저본으로 하였으므로 저자들 역시 이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저본은 필사본인 데다 편성자가 전문 의학자가 아니라서 상당히 오자와 결문이 많았다. 때문에 교감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교감 과정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search/>)에서 제공하는 한국한의학 원전자료들을 다수 참조하였다.

이 책은 의학이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된 전문적인 의학저작이 아니라 민간의 단방경험을 널리 수집한 醫方書이다. 때문에 필자들은 그 의학적 내용과 가치보다 이 책이 편성됨에 있어 원자료로 활용된 『삼의일험방』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민간경험의학의 흐름을 살피는 작업에 치중하였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과학 지식자료 국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 교신저자 : 장우창,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 0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이 연구의 결과가 조선시대 經驗方의 흐름과 民間救急醫學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 II. 本 論

### 1. 作 者

『의방합편(醫方合編)』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의방서(醫方書)이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서고를 거쳐 이장된 필사본 1질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영인되어 공개됨으로써 비교적 최근에 세상에 알려졌다. 아래 사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권 목록의 우측 상단(그림2)에 찍힌 직인은 이 책이 조선총독부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의 장서임을 보여 준다. 우측 하단에는 이 책의 소장자로 보이는 '이풍희(李豊熙)'라는 사람의 장서인(藏書印)이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겉표지(그림1)에 보이는 '醫方合編'이란 제목 역시 필사된 글자가 아니라 합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주장되는 과정에서 분류를 위해 관계자가 임의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이 책은 자서(自序)와 발문(跋文)이 없기 때문에 저자에 관한 정보는 전무하다. 단, 그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책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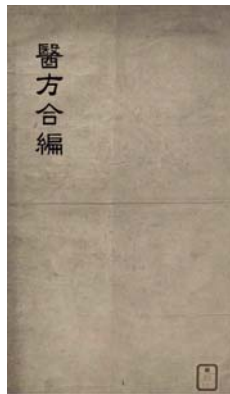


그림 1. 표지



그림 2. 제1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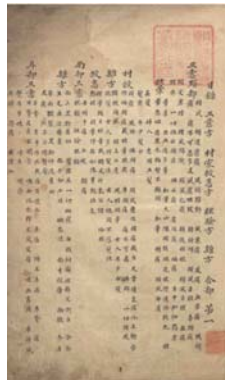


그림 3. 제1권 본문

### 2. 체재

#### 1) 형태서지<sup>2)</sup>

원서명(한글) 의방합편

원서명(한자) 醫方合編

저판자 미상

발행년 미상

판사항 필사본

형태서지 3冊/ 34.9×23.2cm

언어 한문

발행처 미상

1)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계자를 통해 1942년 12월 15일에 기증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지정보의 분류기호가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로 되어 있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방합편(醫方合編)'이란 제목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수장되는 과정에서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참고.

## 2) 구성

## (1) 원자료의 배열과 특성

이 책은 병증 분류 체계로서 ‘부(部)’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면서도, 각각의 부(部) 아래에 4종 원자료의 ‘방(方)’들을 출전 별로 묶어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독특한 편성 방식은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문에 병증(病證) 분류 체계를 살피기에 앞서 원자료의 배열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의 원자료에 대해 목록의 서두는 “三意方 村家救急方 經驗方 雜方 合部第一”<sup>3)</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자료인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은 『의방합편(醫方合編)』이 첫째로 인용했을 뿐 아니라 목차 역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의방합편』 전서(全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단 동일한 계통의 서적들이 몇 종 존재하여 그 정체에 대한 고찰을 요하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자료 즉 1538년(중종 35)에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은 『의방합편』의 편자가 이 책의 서문으로 전서의 서문을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제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제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나으므로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방서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었다.”<sup>4)</sup> 김정국의 이 말은 『의방합편』의 편성 배경을 밝혀 주고 있다.

『의방합편』은 이상 두 자료를 골자로, “其以下, 問書雜方經驗”<sup>5)</sup>라고 하여 사이사이에 ‘잡방(雜方)’과 ‘경험(經驗)’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험’과 ‘잡방’은 독립적인 형태의 책이라기보다 『의방

합편』의 편자가 소유하고 있던 단편적인 기억 또는 문헌 형태의 자료를 말하는 것 같다. ‘경험’은 편자 자신의 경험으로 보이며, ‘잡방’은 편자가 보유하고 있던 단편적인 문헌자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經驗)을 잡방(雜方)에 비해 앞에 배열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 보다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방(方)’들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들을 병증 분류 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한 『의방합편』의 독특한 편성 방식은 민간 단방 경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집이라는, 편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인 『삼의일험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록의 서두에 따르면 『삼의일험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三意一驗方: 李碩幹·蔡得己·朴濂·許任·本草·東醫·聞見方”<sup>6)</sup> ‘삼의(三意)’에 해당하는 석간(石澗) 이석간(李碩幹), 학정(鶴汀) 채득기(蔡得己), 오한(梧漢) 박렴(朴濂)은 광해(光海) 인조(仁祖) 연간에 크게 이름을 떨쳤던 명의이다. 허임(許任)은 『침구경험방(針灸經驗方)』으로 잘 알려진 인조 대의 명의이다. ‘본초(本草)’는 1189년에 금(金)의 장존혜(張存惠)가 엮은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약칭 ‘비용본초’)로서 조선 시대에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표준약전(標準藥典)의 역할을 한 본초서이다.<sup>7)</sup> ‘동의(東醫)’는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말하며, ‘문견(聞見)’은 『삼의일험방』 편자의 ‘문견’으로 보인다. 이석간, 채득기, 박렴의 경험에 허임, 『비용본초』, 『동의보감』의 내용이 추가되고 편자의 ‘문견’이 덧붙여진 『삼의일험방』의 편성 방식은 “李碩幹·蔡得己·朴濂·許任·本草·東醫·聞見方”의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편성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의방합편』의 『삼의일험방』과 『사의경험방』이 정확하게 동일한 책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분량에 있어 『의방합편』의 『삼의일험방』이 『사의경험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3)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

4)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5. “方書之劑無材, 則不如得常材以救. 於是, 盡棄全方之書, 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效者, 編集一卷”

5)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6.

6)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5.

7)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외 6人.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 194.

많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문건’에 해당하는 방들의 출전 표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의방합편』의 그것에는 『사의경험방』에 없는 ‘기(奇), ‘백(白), ‘보(補), ‘심(沈), ‘경(京) 등이 다수 존재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침구치법(鍼灸治法)을 극소수 그것도 본문의 중간에 삽입한 『사의경험방』과 달리 『의방합편』의 그것은 ‘선침구(先鍼灸), 후방약(後方藥)’의 원칙으로 각 부마다 방약의 앞에 침구를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삼의일험방’으로 명명된 최초의 원형이 성립된 이후로 일련의 증보 작업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 ‘삼의일험방’이란 제목이 붙은 서적들이 『의방합편』의 그것 외에도, 겉표지에 『전원필고(田園必考)』로 되어 있으나 속표지에 『삼의일험방』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삼의일험방』으로 간주되는 1종과,<sup>8)</sup> 1976년에 홍순용(洪淳用) 소장본<sup>9)</sup> 으로 소개된 1종이 더 존재할 뿐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비교할 때 출입이 있다는 사실 역시 동일한 추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표1. 참조)

그렇다면 『삼의일험방』의 원형에 가까운 책은 어느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홍순용 소장본을 소개한 『황제의학(黃帝醫學)』에서는 “『삼의일험방』은 광혜조에서 인조 시까지 크게 이름을 떨쳤던 침구명의(鍼灸名醫) 석간(石澗) 이석간, 학정(鶴汀) 채득기, 오한(梧漢) 박렴의 경험방 중에서 후인들이 수록하여 편술하였던 『사의경험방』 중 허임(許任)은 독자적으로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였으므로 그 외 삼인의 경험방만을 수집하여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이라 칭하였다.”라고 하여 『삼의일험방』의 모태가 『사의경험방』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석간, 채득기, 박렴 삼인이 『삼의일험방』의 주인공이라는 견해는 정당하지만 『사의경험방』이 『삼의일험방』의 모태라는 견해는 재론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전원필고』가, “李碩幹 蔡得己 朴廉”의 세 사람만을 거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인용 자료에 있어서도 『사의경험방』이나 『의방합편』의 그것에 비해 소략하다는 점에서

『삼의일험방』의 원형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저자를 표지함에 있어서도 『사의경험방』과 『의방합편』의 그것이 성(姓)을 취한 점과 달리 ‘石方’, ‘鶴方’하는 따위로 호(號)를 취하고 있는 점 역시 원저자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삼의(三意)’의 경험을 주축으로 한 원시 『삼의일험방』을 모태로 증보되는 과정에서 『사의경험방』이나 『의방합편』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래 도표를 보면 『전원필고』에서 『사의경험방』, ‘의방합편’의 『삼의일험방』의 순으로 가면서 인용단위가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중간에 어떤 연유로 제목이 바뀌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관련 서적들의 선후 문제 역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삼의일험방』이란 책이 민간에 유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삼의일험방』 계열의 서적들은 『동의보감』의 성립 이후 전문적인 의학 서적에 의지하지 않고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단방(經驗單方) 류의 지식들이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방합편』은, 원시 『삼의일험방』을 기저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험단방들의 지층을 더욱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채	박	이	허	동	본	문건	비고
삼의일험방 (전원필고)	○	○	○	×	○	×	생(生), 행(杏)	선침구, 후약방
사의경험방	○	○	○	○	○	○	생(生), 행(杏)	약방위주 (문중에 침구 일부)
삼의일험방 (의방합편)	○	○	○	○	○	○	생(生), 행(杏), 문(聞), 기(奇), 백(白), 보(補), 심(沈), 경(京)	선침구, 후약방

표 1. 『삼의일험방』 계열 서적들의 인용사항

8) 전원필고 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search/>) 해제정보 ‘전원필고’ 검색.

9) 이석간, 채득기, 박렴. (자료)三意一驗方. 黃帝醫學. 1976. 1(1). pp.61-75.

## (2) 체재

『의방합편(醫方合編)』은 2권(卷) 3책(冊)이다. 3책은, 2책에서 ‘三意方 村家救急方 經驗方 雜方合部 第二’<sup>10)</sup>라고 한 것에 이어 바로 ‘두역문(痘疫門)’<sup>11)</sup>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第二’의 연속이다. 제1권은 두부(頭部), 면부(面部), 목부(目部), 비부(鼻部), 구부(口部), 치문(齒門), 인후부(咽喉部), 흉부(胸部), 심부(心部), 복부(腹部), 견배부(肩背部), 요부(腰部), 족슬부(足膝部)의 순으로 구성되며,<sup>12)</sup> 제2권은 풍부(風部), 체창과상풍부(諸瘡破傷風部), 광간부(狂癇部), 학질부(癩疾部), 대소변부(大小便部), 전음후음(前陰後陰), 산부(疝部), 치질부(痔疾部), 락란부(霍亂部), 해수부(咳嗽部), 담음부(痰飲部) 이상 제2책<sup>13)</sup> 그리고 두역(痘疫), 홍역(紅疫), 창종(瘡腫), 중독(中毒) 및 손상(損傷), 제상(諸傷), 조양문(調養門),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 양주방(釀酒方), 우마육축병(牛馬六畜病), 잡방(雜方) 이상 제3책<sup>14)</sup>의 순으로 구성된다.

조양문(調養門) 이상의 목차는 『사의경험방』과 『전원필고』에서도 그대로 공유되는 것으로,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의 목차와 골격이 동일하다.<sup>15)</sup> 이런 유사성은 『삼의일험방』이란 책이 애초에 『침구경험방』의 목차를 골격으로 이석간, 채득기, 박담 삼의(三意)의 침구(鍼灸)와 방약(方藥) 경험을 수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책의 제목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침구 관련 내용이 희박할뿐더러 극소수의 기재 역시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사의경험방』과 달리, 『전원필고』와 『의방합편』의 『삼의일험방』은 공통적으로 침구(鍼灸)를 앞에 두고 방약(方藥)을 뒤에 놓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침구경험방』의 목차는 『삼의일험방』에 원용되었고, 『의방합편』은 『삼의일험방』의 목차를 원용하여 전서(全書)의 목차를 삼았다. 『삼의일험방』의 목차는 크게 보았을 때 이론에 해당하는 내경(內景)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 앞에 외형(外形)을 놓고 뒤에 잡병(雜病)을 놓은 방식은 『동의보감』과 유사하다. 『동의보감』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모는 우선 『동의보감』에서 잡병(雜病)에 둔 병증(病證)들을 가능한 신형(身形)으로 분속(分屬)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민간에서 병증(病證)을 감별하기 보다는 손쉽게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 위주로 병(病)을 파악하고, 구하기 힘든 약재를 찾기 보다는 손쉬운 침구 치료를 위주로 질병(疾病)을 치료하고자 한 실용성에 입각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제2권에 수록된 잡병(雜病)의 목차를 보면, 구급(救急)을 요하는 위중한 병증들과 상견 질환을 위주로 편성한 점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동의보감』의 경우, 외감(外感)에 해당하는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를 앞에 두고, 내상(內傷), 허로(虛勞), 락란(霍亂), 구토(嘔吐), 해수(咳嗽) 등의 내상잡병(內傷雜病)을 뒤에 두어 먼저 병을 외내(外內)로 대별하고 나서 해학(痲瘡), 온역(瘟疫), 사수(邪祟), 응저(癰疽), 제창(諸瘡), 제상(諸傷), 해독(解毒), 구급(救急), 괴질(怪疾) 등과 같은 난치성 질병이나 위급한 질병들을 붙인 데 비하여,<sup>16)</sup> 『의방합편』은 역으로 풍(風), 파상풍(破傷風), 권역(厥逆) 등의 위급한 병증을 머리에 두고 이어서 광간(狂癇), 학질(癩疾) 등의 난치성 병증과 대소변(大小便), 산(疝), 치질(痔疾), 락란(霍亂), 해수(咳嗽) 등의 상견 병증들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방합편』의 권역부(厥逆部)는 일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병증들을 모은 것<sup>17)</sup>으로서 중풍과 함께 가장 응급을 요하는 병증에 해당한다. 광간(狂癇), 학질(癩疾) 등은 난치성 고질병에 속하는 병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소변부(大小便部)에 보이는 대소변불리(大小便不利), 이질설사(痢疾泄瀉), 탈항(脫肛), 소변적황(小便赤黃),

10)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

11)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

12)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3-12.

13)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3-14.

14)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3-5.

15)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search/>) 해제정보 ‘전원필고’ 검색

16) 허준.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117-173.

17)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33-49.

뇨혈(尿血), 하혈(下血), 적백탁(赤白濁)<sup>18)</sup> 등 많은 병증들은 당시에 이런 질병들이 매우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疝)과 치질(痔疾), 즉 전음(前陰)과 후음(後陰)의 대표 병증을 별도로 부(部)로 독립<sup>19)</sup>시킨 이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방합편』에는 여타 『삼의일험방』류 서적들과 달리 ‘상한(傷寒)’ 또는 ‘한부(汗部)’에 해당하는 외감(外感) 관련 목차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1권의 말미에 ‘약방경험가감법(藥方經驗加減法)’<sup>20)</sup>에 뭉뚱그려져 있다. 여기에 보이는 상용방(常用方)들 가운데 삼소음(蔘蘇飲),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십신탕(十神湯), 오령산(五苓散), 생료오적산(生料五積散), 가감현무탕(加減玄武湯), 향소산(香蘇散) 등은 내외상(內外傷)과 상한(傷寒)·온병(瘟病)을 불문하고 적절한 가감을 통해 외감을 치료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sup>21)</sup> 이 역시 육기(六氣)를 구별하는 난해한 변증(辨證) 과정을 생략하고 몇 개의 상용방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대처하고자 한 실용적인 의도를 보여 준다.

제2권이 분리된 3책은 대략적으로 『동의보감』의 응저(癰疽) 이하 잡방(雜方)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동의보감』의 구급(救急)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2권 머리의 권역부(厥逆部)로 이동시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소아과(小兒科)의 두역(痘疫)과 홍역(紅疫)을 분문하여 창종부(瘡腫部)의 앞에 위치시켰다. 이들 병증은 대단히 치명율이 높은 질병으로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홍역의 경우는 『동의보감』에는 두창(痘瘡)의 말미에 몇 줄 부기되어 있을 뿐이나, 별도로 분문(分門)함으로써 당시 홍역이 크게 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침구경험방 <sup>22)</sup>	전원필고 <sup>23)</sup>	사의경험방 <sup>24)</sup>	의방합편
두면부	두부 면부	두부	두부 면부
이부		이부	이부
목부	목부	목부	목부
비부		비부	비부
구부		구부	구부
치부			치부
인후	인후부	인후부	인후부
협항			합협항부
심흉	심부	심부	심부
		흉부	흉부
복협	복부	복부	복부
종창(腫脹)			
적취			
요배	견배부	견배부	견배부
	요부	요부	요부
신체(불인제증)	신부	신부	신부
수비	수부	양수	수부
각슬	족슬부	각부	족슬부
제풍	풍부	풍부	풍부
궤역	궤역부	궤역부	궤역부
급사			
전간		광간부	광간부
학질	학질부	학질부	학질부
대소변	대소변부	대소변부	대소변부 (대소변불리, 이질설사, 탈항, 소변적황, 뇨혈하혈적백 탁)
	음림부	음림부	
이질	이질부	이질부	설사부
곽란	곽란부	곽란부	곽란부
			전음후음
음산(오림음위)	산부	산부	산부
치질		치질부	치질부
식불화	음식부	음식부	
구토	구토부	구토부	
해수		해수부	해수부
			담음부
	소갈부	소갈부	

18)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70-104.

19)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09, 116.

20)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47.

21)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148-152.

2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 일지사. 1992. pp.4-5.

23) 한국한의학회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부	한부	
		상한	
		온역	
		벽은	
종창	창종부	옹저	두역
		제창	홍역
			창종
		부종, 황달, 건습, 각기, 열격, 구급사, 급창출혈불지, 오탄제물, 절창, 장창상, 과상풍	중독손상
			제상
			우마육축법
			조양문
나력 황달 허로, 노채, 상한(온역), 안수, 어, 한, 부인, 소아		제중독, 제독약, 마독, 제중수독상, 부인문, 소아제병, 제독약, 잡부(정월초일일간풍홍법, 노령단, 잡방, 잉부점납녀법)	잡방(구황벽곡방, 양주방 등)

표 2. 『삼의일험방』 계열 의방서(醫方書)들의 목차 비교

이어서 『동의보감』의 잡방(雜方)에 보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잡다한 방법들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특히 이 잡방 부분에는 『동의보감』에 보이는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 뿐만 아니라 술 빚는 방법[釀酒方]<sup>25)</sup>,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치는 법[辟妖氣]<sup>26)</sup>, 도적과 화재를 피하는 법[辟盜賊火災]<sup>27)</sup>, 곡으로 건량을 만드는 방법[五穀糧米]<sup>28)</sup>, 부자가 되는 방법[移富法]<sup>29)</sup> 등에 이르는 의학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잡다한 방법들은 『전원필고』나 『사의경험방』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대부분 『삼의일험방』에서 채록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0)</sup> 이 역시 『의방합편』의 『삼의일험방』이 『전원필고』나 『사의경험방』에 비해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3. 내용

#### 1) 침구 및 물리요법 우선

『의방합편』은 침구(鍼灸)를 강조하여 각 부(部)마다 침구(鍼灸)를 방약(方藥)의 앞에 두고 있다. 특히 구법(灸法)을 중시하여 침법(鍼法)보다 구법을 앞둔 경우가 많다. 구법인 경우 반드시 뜸을 뜨는 장수(壯數)를 병기하였고, 침법의 경우는 침을 놓는다는 말을 생략하고 일률적으로 혈위(穴位)만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비롯한 사지 말단의 병에는 환측(患側)의 반대편에 시술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예컨대 두부(頭部)의 경우, “頭中諸病, 皆灸風府. 頭諸病, 曲池·合谷主之. 合谷·耳前髮際·風池.”<sup>31)</sup>라고 하여 구법(灸法)에 이어 침혈(鍼穴)을 나열하였으며, 편두통(偏頭痛)의 경우 “列缺·大淵, 左右取. 羅布縷項, 則左右鬢邊紫脈浮起, 以三稜刺出血.”<sup>32)</sup>라고 하여 환측의 반대편에 시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삼릉침으로 사혈하는 요법도 제시하였다. 편두통과 정두통(正頭痛)을 가리지 않고 “偏正痛, 阿是穴針之愈.”<sup>33)</sup>라고 하여 아시혈을 취하는 요법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침법을 소개하고 있다. 혈위의 선정에 있어서는 정경(正經)의 혈 뿐 아니라 다양한 경외기혈(經外奇穴) 들 예컨대 호구(虎口)<sup>34)</sup>, 내영향(內迎香)<sup>35)</sup>, 어미

(<http://jisik.kiom.re.kr/search/>) 고문헌정보 참고.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search/>) 고문헌정보 참고

25)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85.

26)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95.

27)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95.

28)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95.

29)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95.

30)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87, 95.

31)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7.

32)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9.

33)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9.

34)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0. “眩暈…虎口

(魚尾)<sup>36)</sup>, 대골공(大骨空), 소골공(小骨空)<sup>37)</sup>, 백로(百勞)<sup>38)</sup>, 중천(中泉)<sup>39)</sup>, 귀안(鬼眼)<sup>40)</sup>, 독음(獨陰)<sup>41)</sup>, 연미(燕尾)<sup>42)</sup>, 성성(惺惺)<sup>43)</sup>, 현명(懸命)<sup>44)</sup> 등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혈까지 두루 취하고 있다. 침법에 있어서도 호침(毫鍼) 뿐 아니라 목적에 따라 삼릉침(三稜鍼)을 이용하여 사마귀를 도려내거나 증기를 절개하여 피고름을 빼는 등의 외과적인 방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구법도 매우 다양하여, 종류로 보면 목힌 축[陳艾]<sup>45)</sup>이나 찔 축[熱艾]<sup>46)</sup>을 쓰는 등의 방법이 보이며, 방법으로 보면 단지를 붙이고 뜸을 뜨는 ‘부단지구

內陷中.”

- 35)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2. “暴盲… 攢竹, 丁前五穴百會·前頂·顛會·上星·神庭, 內迎香, 以蘆針出血, 立明.”
- 36)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5. “白瞽… 孕婦瓜甲, 刀刮作末, 和男乳點滴. 刺魚尾.”
- 37)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43. “風淚, 大小口空灸五壯, 以口吹之滅火.”
- 38)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50. “不嗅, 迎香『朴』人中百勞【灸】.”
- 39)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81. “胸痛. 中泉【灸】公孫『朴』”
- 40)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54. “癩邪. 針鬼城【乃十宣也, 手足皆取.】灸鬼眼, 【即少商也】”
- 41)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02. “卒發腹痛. 馬刀蛤. 【見上】灸獨陰. 『東』”
- 42)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95. “胸腹痛… 灸燕尾別穴能救.”
- 43)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6. “中風不語, 細辛煎服. 『朴』【風府三里星星.】『蔡』”
- 44)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54. “邪鬼妄語. 懸命【三七.】『生』”
- 45)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48. “折骨還續方. 柳木削薄片, 排結折傷處, 用陳艾作牛角形柱, 灸其上”
- 46)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63. “爪牙所傷之孔 【慎【填】熱艾, 灸之則不痛不腫, 風不入.】”

(付丹地灸)<sup>47)</sup>나 마늘, 진병 등을 환부에 올리고 그 위에 뜸을 뜨는 이른바 ‘격구법(隔灸法)’,<sup>48)</sup> 귀나 입, 항문 등으로 대롱을 넣어 연기를 안으로 넣는 ‘통구법(筒灸法)’<sup>49)</sup>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환부를 따뜻하게 찜질하는 방법인 ‘올법(熨法)’도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으며, 따뜻한 온돌 위에 눕거나 뜨겁게 데운 항아리 속에 몸을 넣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땀을 내는 요법도 상당수 보인다.

피부질환 등 외과적인 치법이 활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향약(鄉藥)을 이용하여 고약(膏藥)을 만들어서 환부에 붙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약물을 전탕(煎湯)하여 만든 액상 제형으로 환부를 씻어내는 방법들도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 외 약물을 태워 연기를 환부에 쏘이는 훈법(薰法)도 곳곳에 보인다.

이상의 다양한 침구법(鍼灸法) 및 기타 물리요법(物理療法)들을 검토해 볼 때 당시 이 방면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이 대중의학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면서 침법과 뜸법의 일부만이 계승되었을 뿐 대부분의 요법들은 맥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방법들은 복원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경험 단방 위주의 치법

『의방합편』은, 『촌가구급방』의 서문을 빌어 말했듯이 구하기 힘들고 제형이 복잡한 의서의 정통 방제들 보다는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른 바 향약(鄉藥)들을 사용하는 치법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향약들은 주위에서 흔히 쓰는 채소, 과일, 곡식, 가축 등으로부터 주위 산야에서 구할 수 있는

- 47)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30. “瘡邊結毒處, 及瘡內腫根【間三四日針, 破後付丹地灸.】”
- 48)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5. “大蒜【切片, 置疔上灸, 熱則易之, 以差爲度.】”
- 49)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67. “閉塞水飲不下. 蛇退, 納瓶中, 火燃之, 屬竹筒於瓶口, 令煙上管中, 卽合管端吸, 熏之.”

식물, 동물, 광물 심지어는 미투리, 수레의 비너장 등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활용의 원리로 보아도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경우도 있고 민간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도 있어 일정치 않다. 이는 원자료의 유입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방유취(醫方類聚)』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과 같은 정통 의학 서적을 통해 유입된 자료의 경우 의학적 지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순수한 민간의 문건으로서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심지어는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삼킴은 물론이요 주문을 외기도 하고 남에게 저주를 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방법까지도 여과 없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의 견지에서 보면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민간에서 오래도록 유전되어 온 풍속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여 향약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예컨대 형력(荊瀝)을 ‘가시나무진’이라 하고,<sup>50)</sup> 호파자(蒿芭子)를 ‘비양마조’라 하고,<sup>51)</sup> 해약(櫛櫛)을 ‘속소리춤나모넝’이라 하고<sup>52)</sup>, 잠목(柁木)을 ‘무프레나모’라 하고<sup>53)</sup>, 유목(柎木)을 ‘삐리나모’라 하고<sup>54)</sup>, 백부근(白部根)을 ‘가스새’라 한 것<sup>55)</sup> 등이 그것이다. 이런 예들에는 더러 오식이 섞여 있어 그 진위로 보자면 의학적인 검토가 요구되지

만 당대 우리말의 쓰임을 연구하는 데에는 일정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생활에 긴요한 잡방의 수집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민생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그 말미에 흉년에 곡식이 끊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식품들을 비롯하여, 갖가지 민생에 유익한 방법들을 「잡방(雜方)」에 부기하였는데, 『의방합편(醫方合編)』 제2권(3책)의 말미에 붙은 「잡방(雜方)」은 『동의보감』에 비해 훨씬 잡다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예컨대, 요사스런 기운을 물리치는 방법[辟妖氣], 도적이거나 화재를 피하는 방법[辟盜賊火災], 집에 있을 때 피해야 할 사항들[居家雜忌], 곡식으로 건량 만드는 방법[五穀糧米], 부자 되는 방법[移富法], 장이나 식초 담그는 방법[醬醋油], 술 빚고 차 만드는 방법[酒食茶], 생선 보존하는 방법[醃魚肉], 먹 만드는 방법[造墨法], 화책에 글씨 쓰는 방법[書字畫冊], 갖가지 향[諸香], 책 붙이는 풀 만드는 방법[貼冊糊法], 갖가지 등불과 관련된 사항[燈火燭火炭火], 우물과 관련된 사항[井], 초목과 화훼[草木花卉], 갖가지 과일[諸果], 매운 채소들[五辛諸菜], 금은동 등과 관련된 사항[金銀銅劍瓦石], 구슬과 관련된 사항[珠玉], 칼 가는 방법[磨劍法], 경분 제조법[輕粉法], 세탁법[洗衣], 베 만드는 방법[做布法], 그릇과 관련된 방법[器皿], 꿈[夢寐], 택일법[擇吉], 먼길을 갈 때 주의사항[行遠路], 갖가지 해충 구제법[辟諸蟲], 갖가지 기생충 구제법[辟諸蟲], 쥐를 박멸하는 방법[辟鼠法], 집에서 기르는 가축 관련 사항[鷄犬貓], 물고기 잡는 방법[捕魚法], 바람피는 아내 식별하는 방법[鸚血法], 녹슬지 않게 침을 보관하는 방법[藏針不銹法], 서로 어울리지 않는 빛깔[彩色相忌], 지남철 체련하는 방법[煉指南針法], 화병이 얼지 않게 하는 방법[花瓶防凍], 흙부처에 영험 듣게 하는 방법[塑佛祈靈法], 노즙 만드는 방법[老汁方] 등 실로 다양하다.<sup>56)</sup>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상의 잡다한 방법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비합리적인 속설들을 여과없이 기재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가치

50)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1. “風頭. 荊瀝【가시나무진】不限多少服.”

51)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37-38. “腫痛不得開…蒿芭子【비양마조】, 疵【庇】在屋下, 不受雨露而陳者”

52)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48. “眼胞上下紋爛赤, 水芹煎水洗. 櫛櫛【속소리춤나모넝】煎水洗.”

53)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65-66. “齒痛. 以柁木【무프레나모】爲養齒木, 朝夕用之, 乃佳.”

54)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66. “柎木【삐리나모】長三四寸…”

55)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38. “頭瘡去蝨法…白部根【가스새】…”

56)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95-111.

를 논할 수 없겠으나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대중 처방 제시

『의방합편(醫方合編)』에는 단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0수가 넘는 많은 처방들이 기재되어 있다. 처방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의학적 논리를 따르기 보다는 무슨 증상에는 무슨 처방 하는 식으로 민간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 출전도 다양하여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에 원래 있던 것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잡방(雜方)’에서도 적절한 방을 뽑아 놓았다.

예) “出血過多暈者. 宜芎歸湯.”(삼의일험방)<sup>57)</sup>

“眩暈汗出如流, 寒熱往來, 宜半夏白朮天麻湯.”(촌가구급방)<sup>58)</sup>

“鼻上紅色小腫, 宜三黃湯.”(경험)<sup>59)</sup>

“手臂痛. 宜虎骨散.”(잡방)<sup>60)</sup>

그리고 제1권의 말미에는 ‘약방경험가감법(藥方經驗加減法)’을 붙여 상용 처방들의 적응증과 가감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상용방으로 열거된 방들로는 대금음자(對金飲子), 생료오적산(生料五積散), 사물탕(四物湯), 이진탕(二陳湯), 오령산(五苓散), 사군자탕(四君子湯), 오약순기산(烏藥順氣散), 삼소음(參蘇飲), 가감현무탕(加減玄武湯),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십신탕(十神湯), 향소산(香蘇散)이 있다.<sup>61)</sup> 이들 처방들은 『동의보감(東醫寶鑑)』과 『방약합편(方藥合編)』의 영향 하에 지금도 국내에서 상용하는 처방들이다.

### III. 결론

『의방합편(醫方合編)』은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과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의 내용을 주축으로 편자의 경험과 단편 자료들이 첨부된 형태의 대형 의방서(醫方書)이다. 이 책은 민간의 단방경험들이 누적적으로 취합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된 것으로서 이론적인 배경 없이 대중으로 일관하였으므로 전문적인 의학자작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책의 가치는 오히려 정통 의학의 시혜에서 벗어나 질병과 싸워야 했던 일부 지식인들과 무수한 백성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집적하였다는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역사적 가치는 『삼의일험방』으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경험방(經驗方)의 전통과 『촌가구급방』으로 대표되는 구급의학(救急醫學)의 전통이 융합되어 구급(救急)을 위주로 하는 경험의학(經驗醫學)의 맥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침구경험방』의 목차를 원용하고 있는 이 책의 질병 분류 체계는 민간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실용적인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방약(方藥)의 앞에 침구(鍼灸)를 놓고 복합 제형보다 주위에 흔한 사물들을 약재로 취할 뿐 아니라 때로는 비합리적인 방법마저 주저하지 않는 이 책의 치료방법은 민간의 절박한 실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이 책의 치료방법이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무수한 단방들 중에는 정확한 본초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 지금 시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면밀한 변증(辨證)에 근거하여 치료했을 때의 일이지 동일한 방법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단, 이 책이 전하는 다양한 침구치료법(針灸治療法) 및 물리요법(物理療法) 중에는 현재 전승이 끊어진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계의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구법, 찜질법, 목욕법, 훈법들 중에 안전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면 의학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7)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0.  
 58)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3.  
 59)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54.  
 60)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30.  
 61)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p.147-152.

이 책에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미신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방법들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공유해 온 무의식과 풍속이 섞여 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산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기도 하며, 그 사람들이 산 시대의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망이나 심리적 공포 같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의 문화나 인간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책에는 상당 수 우리말들이 보인다. 이 역시 옛 우리말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參考文獻

### <논문>

1. 이석간, 채득기, 박렴. (자료)三意一驗方. 黃帝醫學. 1976. 1(1). pp.61-75.

### <단행본>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웅재, 박경남, 박현국, 방정균 外 6人.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194.
2. 허임. 침구경험방. 서울. 일중사. 1992. pp.4-5.
3. 허준.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p.117-173.

### <기타매체>

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2. 사의경험방 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search/>) 해제정보 '사의경험방' 검색.
3. 醫方合編 第三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25, 30, 63, 85, 87, 95. pp.3-5.
4. 醫方合編 第二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6,

- 54, 109, 116. pp.3-14, 33-49, 70-111.
5. 醫方合編 第一冊.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원문제공자료. p.15, 16, 17, 19, 20, 21, 23, 32, 35, 43, 48, 50, 54, 81, 95, 102, 130, 138. pp.3-12, 37-38, 65-67, 147-152.
6. 의방합편 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search/>) 해제정보 '의방합편' 검색
7. 전원필고 해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search/>) 해제정보 '전원필고' 검색.

